



김 청 회장
(사)한국포장기술사회
www.packnet.co.kr

병술년신년사

포장의 사회적 가치를 알리는 한해로 ...

丙戌年, 개의 해가 밝았습니다. 새해를 맞아 한국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의 조합사 및 포장인 여러분 모두의 건승과, 하시는 일마다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.

지난해 국내외 경제는 국제유가 급등, 재료비 상승, 경기부진, 업체간 과당경쟁, 소재 간 수요경쟁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.

골판지포장 분야는 전체 포장산업 중에서도 가장 큰 규모를 갖추고 있습니다. 이러한 커다란 시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포장소재 간의 경쟁대상으로 표적이 될 수도 있지만, 또한 커다란 성장 잠재력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. 그러므로 지나친 경쟁보다는 블루오션을 향한 새로운 기술, 새로운 재료, 새로운 설계, 새로운 수요개발에 대하여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. 앞으로의 길은 새로운 포장기술 및 소재의 개발과 이를 통한 수요의 창출을 만들어야 합니다. 이것이 이익률을 높이고 경쟁력을 갖추는 길입니다. 물론 쉽지 않은 길이지만 미래의 승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나서야 할 일이기도 합니다.

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에서는 정말 소비자들의 눈을 사로잡을 만한 다양한 신제품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. 이 가운데 내가 만드는 제품의 경쟁력을 평가하고 고민해 보아야

합니다. 골판지업계에서 만든 패키지가 전세계로 나가 각국의 패키지들과 경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. 또한, 세계로 눈을 돌려보면 내 주변의 부족한 모습들도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.

그리고 지난해 불거진 한국포장개발연구원의 연구과제 개발문제는 포장의 사회적 위상이 너무나 미약하다는 점을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었습니다. 이제 이 사건은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만, 사건의 마무리로써 그쳐서는 안 될 것이며, 이를 계기로 국내 포장산업계가 새롭게 변화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. 문제로 지적되었던 포장산업의 지원체제에 대한 시스템은 각계의 의견과 토론을 통해 새로운 개선을 가져와야 할 것이며, 그 전에 사회적인 변화에 맞춰 포장분야도 변화되어야 한다는 교훈을 다시금 되새기게 해 주었습니다.

무엇보다 새해에는 포장산업계가 해결해야 할 여러 현안들 중에서도 포장업계 전체의 공존공영을 위한 포장산업의 위상정립이라는 부분을 먼저 고려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. 포장의 사회적 가치를 알리는 일은 어느 특정인들만의, 어느 특정 단체만의 일이 아닌 국내 포장산업계 전체가, 포장인 모두가 나서야 할 일입니다. 또한 포장의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가는 일도 포장산업계에서 공동으로 수행해나가야 하겠습니다. 이를 위해 포장산업계의 각 분야별 단체들의 통합적인 기구가 먼저 결성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이 제기됩니다.

새해의 시작도 순탄치만은 않습니다.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사회적 불안정과 불황 속에서 시장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. 이러한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국내 포장산업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발판을 마련하고 포장에 대한 가치를 알리는 일을 위해 포장인 모두의 협력이 필요합니다.

다시 한번, 丙戌年 새해에 포장업계의 발전과 개인적으로도 하고자 하는 소망이 모두 이루어지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.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십시오.

